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연구*

-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Mothers' and Grandmothers' Infant / Toddler Rearing Beliefs*

- Examined by Interdependence and Independence -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이완정

교수 현온강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Wanjeong

Professor : Hyun, On Ka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mothers' child rearing beliefs for their infant/toddlers and to compare young mothers' child rearing beliefs with grandmothers'. The subject was composed of 130 pairs of young mothers whose first child is 2 - 2 and half years old and their mothers(grandmothers) in Taegu city area. The major results of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Korean mothers'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had four subfactors in both area of Interdependence and Independence.
2. Korean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had higher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of interdependence than those of independence.
3. Korean grandmothers had higher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of interdependence than young mothers.
4. Korean young mothers had higher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of independence than grandmothers.
5. While Korean grandmothers had mainly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of interdependence, Korean young mothers had both infant/toddler rearing beliefs of independence and those of interdependence.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중 일부임.

I. 서론

한 인간이 수태되어 태어나고, 주양육자의 집중적인 보육을 받아야 하는 생후 1, 2년간의 기간은 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자들에게 까지도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먼저 청년기의 두 성인남녀는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거처온 발달 특성을 서로 조율하는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다가 첫아이를 갖게 되면 새로운 상황의 요구가 더욱 커지므로 첫 부모됨의 의미와 이 시기의 중요성은 어느 사회, 어느 부모에게나 크게 마련이며, 인간의 전 생애발달의 기초가 생후 2년내에 마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중요성은 태어난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부모됨과 영아기 양육에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고스란히 응집되어 반영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혼과 첫 부모됨, 그리고 영아기 양육 등 인간발달의 새로운 국면마다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전통적 경험양식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게 되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은 또한 지나는 세월과 새로워지는 사회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마련이다. 즉, 문화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하나의 연속체내에서 계속 혼재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함께 개인의 발달과 적응과정을 매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미국의 첫 부모됨과 첫 자녀의 생후 2년간 전통 양육방식에 나타난 문화간-문화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탐구하려는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문화간(間)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삼국 문화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기 위한 특성이고, '문화내(內)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각 문화마다 생후 2년 정도 된 첫 자녀를 가진 젊은 어머니와 그 할머니 세대를 비교하여 세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기 위한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첫부모됨과 영아기 전통육아의 여러 특징 중 특히 '양육신념(rearing

beliefs)'에 나타난 한국 문화 고유의 특성을 구성해 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세대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한다.

90년대 이후 심리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비교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의 제반 연구결과에서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뚜렷한 의식 차이를 '집합주의(collectiv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라고 볼 수 있다는 가설이 일반화되고 있다(박외숙, 1997; Kagitcibasi, 1996). 이와 비교하여 Greenfield(1994)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발달 및 아동발달의 원리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독립성(independence)'이라고 정리한 이래, 이 가설은 아동발달 분야를 다루는 비교심리학 연구들[구체적인 예는 Super & Harkness(1997)를 참조할 것]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초 발표된 논문에서 Greenfield와 Suzuki(1998)는 영아기 양육방식에 아동의 사회화 및 발달에 대한 부모와 문화의 신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잘 정리해 놓은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걸음마기 자녀의 양육신념에 대한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구성해 보고,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목표는 첫째, 아동발달을 다루는 비교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양육풍속과 신념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문화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양육신념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구성해 보고, 둘째, 이러한 이론적 도구의 내용을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한 실증연구를 통해 요인분석해 보며, 셋째,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하위요인별로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위한 양육신념의 세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유용할 것이며, 아울러 중국 및 미국에서 실증조사된 자료와 우리나라에서 얻어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사

전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상호의존성과 독립성: 인간발달의 비교문화적 특성

개인의 심리를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개인주의' 내지 '독립성'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다. 이에 대해 Triandis (1989)는 '독립적인 개인'이 인간발달의 범문화적 보편원리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는 다른 중요한 신념 체계로 '집합주의' 내지는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신념은 사실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자문화내에서 중시하여 따르고 있는 심리적 원리라는 것이다. Greenfield와 Cocking (1994)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발달 분야에서는 그동안 독립성 지향의 발달원리가 마치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보편원리인 양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Greenfield(1994)는 동양 문화에서 상호의존성을 인간발달의 가치체계로 두고 있는 근거로 어머니와 자녀의 밀접한 물리적 유대, 가족주의, 노인에 대한 공경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가 자녀를 한 방에 데리고 자는 방식에 대한 Kim과 Choi(1994)의 연구, 일본인 어머니가 자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부드럽게 달래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Lebra(1994)의 연구, 유럽이나 미국의 여아는 자매의 가사분담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아프리카의 여아는 기꺼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Mundy-Castle (1991)의 연구, 중국에는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다는 Ho(1991)의 연구 등은 모두 아동양육의 가치로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의 인간발달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문화 연구가 활발해진 이후,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발달의 주요 원리로서 각 문화에서 발견되는 독립성의 원리와 상호의존성의 원리간의

다양성은 이제 특정문화의 고유 원리라기 보다는 문화적 스크립트의 한 연속체로 간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그동안 독립성과 개인주의를 문화적 가치로 중시해온 서구에서도 개인주의의 가치체계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며, 여성들은 이와는 달리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관계지향성의 가치체계를 발달시켜왔다는 Gilligan(1982)의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가치체계를 강조하여 잘 기능하고 있는 여러 하위문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상호의존성과 집합주의를 문화적 가치로 중시해온 동양 문화에서도 서구화 및 산업화의 진전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학교문화의 발달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와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Lau, 1994).

따라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은 모두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 특성으로서 인간발달의 문화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 개인이나 문화가 어떠한 가치체계를 더 많이 추구할 것인가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연속체상에서 그 사회의 시대적 환경이나 문화생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영아기 양육신념에 나타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특성

한 개인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것의 한 부분이 된다. 즉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외적 존재로 있고 개인은 그 사회적 환경이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을 획득해가는 것이 아니라, Vygotsky가 주장한 바 때로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유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그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체득해 가는 것이다(Super & Harkness, 199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의 가치체계는 부모를 매개로 하여 자녀에게 전달되며(communicate), 이는 곧 Pepper(1942)가 주장한 소위 '맥락주의(contextualism)'의 순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Rogoff, 1990).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체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목표들은 보편적 위계에 의해 개념화 시킬 수 있다. 이 위계는 단순하게는 기본적 생존전략부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능력의 획득, 사소한 문화적 가치의 이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목표에는 언제나 그 사회의 풍습이나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다(LeVine, Miller & West, 1988). 그러므로 부모의 문화적 신념체계는 보다 일반적인 문화적 신념 체계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시대·특정한 장소에서 개개인의 아동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과도 관계가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 양육 신념 체계에 나타난 비교문화적 다양성은 동시에 문화내적 다양성과 변화를 함께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Super & Harkness, 1997).

영아·걸음마기는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속한 문화의 풍속, 가치관, 성원의 기대 등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시기이며,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적 영향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pathway)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Weisner, 1996). 영아기 발달목표에 대한 부모의 기대 및 신념이나 방식은 문화마다 독특한 고유성을 띤다. 가령 미국을 중심으로 본 서구문화에서 영아기 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독립적이고 확고한 개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울어도 욕구가 분명한 상황이 아닌 한 '울다 지치게(cry out)'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이의 잠자리는 부모의 것과 격리된 독립적인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Brazelton, 1990). 이와 비교하여 일본, 한국 등의 동양문화권에서는 영아기 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부모와 밀접한 물리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울거나 젖을 보챌 때 가능한 부드럽게 달래주거나 이에 응해주고 밤에 잘 때도 아이가 잠들 때까지 얼러주다가 아이를 함께 데리고 자는 경우가 많다(Greenfield & Suzuki, 1998; Super & Harkness, 1997).

또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방식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구문화에서는 주로 아이를 아기바구니에 넣거나 혼자 아기용 좌석에 앉히는데

비해, 동양문화에서는 주로 아이를 띠로 매어 가슴이나 등에 밀착시킨다(유안진, 1990; Greenfield & Suzuki, 1998). 특히 Anisfeld, Casper, Nozyee와 Cunningham(1990)이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아이를 좌석에 앉히는 어머니와 자녀는 38%만 안정된 애착을 보인데 비해 아이를 띠로 매어 다니는 어머니와 자녀는 83%가 안정된 애착을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서구 문화에서도 어머니와 아이간의 밀접한 유대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문화권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인간발달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문화에서 아동양육의 고전으로 통하는 Spock 박사의 육아서는 현재까지 7판째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Spock박사는 초판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했지만, 후속판에서는 1950년대 미국의 보수주의적 사회풍토에 영향을 받아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 좀 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7번째 개정판에서는 근래 미국사회에서 폭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처벌의 일환으로서 매질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다시 권하고 있다(Parker, 1997).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그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며, 세대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신념체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도 급격한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서도 의식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영아, 걸음마기 자녀를 중심으로 한 양육신념의 세대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이다.

3.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상의 논의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우리나라 어머니의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서는 독립성의 차원보다 상호의존성의 차원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어머니의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어머니의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차원에 대한 개인 내적 수준별 분포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연령이 생후 2세에서 2세 반까지인,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세대라 칭함)와 그 어머니의 친척어머니나 시어머니(본 연구에서는 할머니 세대라 칭함)의 쌍을 유의표집하고자 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한 이유는 대구지역은 우리나라 전통 육아풍속이 많이 남아있고, 서울 등의 대도시보다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여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유의표집된 어머니와 할머니의 쌍은 모두 130쌍이었는데, 어머니 세대의 연령은 20대가 33%(47명), 30대가 67%(79명), 40대가 5%(7명)이었으며, 무응답이 1명이었다. 할머니 세대의 연령은 40대가 24%(3명), 50대가 47%(84명), 60대가 40%(52명), 70대가 8%(10명), 80대가 3%(4명)이었다.

2. 연구도구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의 상호의

존성 차원과 독립성 차원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유안진, 1990; Greenfield, 1994; Greenfield & Suzuki, 1998; Ho, 1994; Kim & Choi, 1994; Super & Harkness, 1997) 및 한국, 중국, 미국의 연구진의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각 나라의 연구진은 자문화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속 문화의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을 잘 나타내는 문항을 ‘...이 좋다’, ‘...이어야 한다’ 등의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양육신념의 각 문항은 ‘거의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나라에서 제작된 문항을 서로 교차비교하여 수유방식이나 재우는 방식 등 공통적인 일반형을 추출한 후, 양육신념의 모든 문항을 상호의존성의 차원을 묻는 문항과 독립성의 차원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대비시켜 구성하였다. 설문도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양쪽 방향의 질문에 모두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의 양육신념에는 상호의존성의 차원과 독립성의 차원이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령, 아이를 재우는 방식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차원을 묻는 문항은 ‘아기는 어머니와 같은 방에 재우는 것이 가장 좋다’로 구성하였고, 이와 대조시켜 독립성의 차원을 묻는 문항은 ‘아기는 아플 때 말고는 다른 방에 재우는 것이 가장 좋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유, 재우는 방식,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방식 등 총 12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의존성의 차원과 독립성의 차원을 대비시킨 24문항의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 얻어진 130쌍 260부의 자료에 대해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문항들과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문항들에 대해 각각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은 4가지로 나왔으며, 분산비율은 52.4%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의존성의 하위요인은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

〈표 1〉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결혼마기 자녀 양육신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 = 260)

요인명	항목의 내용	요인부하량				Cronbach α 값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음 (4문항)	아기와 외출할 때는 포대기나 끈을 이용하여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	.82	.15	.07	-.04	.6271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는 포대기나 끈을 이용하여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	.82	-.13	.06	.01	
	아기는 배고파 할 때마다 먹여주어야 한다	.55	.29	.02	.14	
	아기는 어머니와 같은 방에 재우는 것이 가장 좋다	.42	.08	.34	-.04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음 (3문항)	2세 정도의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답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03	.68	.17	.08	.5150
	2세 정도의 아이라면 그 의견을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	.12	.66	-.07	.09	
	2세 정도의 아이라도 밥을 먹을 때는 도와주어야 한다	.09	.60	.09	.16	
모유 수유를 중시함 (2문항)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와 어머니의 밀접한 심리적 관계형성에 좋다	.04	.01	.83	-.15	.4801
	모유를 먹이는 아기들이 대개 분유를 먹이는 아기들보다 더 건강하다	.14	.08	.71	.16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함 (3문항)	2세 정도의 나이라면 집에서 아래옷을 벗은 채 맨몸으로 돌아다니어도 괜찮다	.06	.22	-.01	.68	.2135
	2세 정도의 아이라면 위험하지 않은 한 돌아다니며 만지는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08	-.50	.11	.62	
	대부분의 아기들은 1세 반이 지나도록 배변 훈련을 충분히 시키기 어렵다	-.04	.17	-.03	.48	
고 유 치 (Eigenvalue)		2.44	1.52	1.18	1.12	6.26
분산 설명력 (%)		20.4	12.7	9.9	9.4	52.4

시간이 없음(4문항)',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음(3문항)', '모유 수유를 중시함(2문항)',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함(3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62, .52, .48, .21이었고,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총 양육신념의 신뢰도는 .5218이었다.

다음으로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하위요인 역시 4가지로 나왔으며, 분산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은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해 줌(4문항)',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을 따름(4문항)', '인공유 수유도 상관없음(2문항)', '자녀의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함(2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57, .51, .69, .15였고,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총 양육신념의 신뢰도는 .6531이었다.

3. 연구절차

연구도구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두 번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머니 20명에게 연구도구의 내용이 이해되는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두 번째 예비조사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5쌍에게 설문지를 응답해 보게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자료조사원이 첫 자녀의 연령이 2세부터 2세 반 까지인 어머니를 표집하여 그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표 2>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결혼마기 자녀 양육신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 = 260)

요인명	항목의 내용	요인부하량				Cronbach α값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해 줌 (4문항)	2세 정도의 아이라도 때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75	.16	.08	-.06	.5736
	2세 정도의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어리더라도 가능한 이에 대해 줄 필요가 있다	.71	-.08	-.00	-.04	
	2세 정도의 아이라면 흘려도 혼자서 밥을 먹도록 해 주어야 한다	.53	.13	.14	.27	
	2세 정도의 남아라도 어디서나 항상 아래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49	.02	.14	.18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 시간을 따름 (4문항)	아기와 외출할 때는 아기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02	.75	.10	.03	.5099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는 흔들의자나 아기 침대에 눕혀 흔들어 주는 것이 편리하다	.16	.64	.12	.09	
	아기는 규칙적인 시간에 맞추어 먹여야 한다	.37	.56	-.08	-.02	
	아기는 아플 때 말고는 다른 방에 재우는 것이 좋다	-.27	.48	.25	.12	
인공유 수유도 상관없음 (2문항)	분유를 먹이는 아기들도 모유를 먹이는 아기들만큼 건강하다	.15	.12	.82	-.08	.6938
	인공유를 먹여도 아기와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	.16	.18	.79	.20	
자녀의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함 (2문항)	어머니가 적절히 훈련시키기만 한다면, 아기는 1세 반 이후에는 기저귀를 채울 필요가 없다	.06	.01	.08	.85	.1483
	2세 정도의 아이라도 만질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해야 한다	.28	.31	-.28	.35	
고유치(Eigenvalue)		2.65	1.48	1.20	1.03	6.36
분산 설명력(%)		22.2	12.4	10.1	8.6	53.2

가능한지 알아본 후 자료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조사원은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된 설문지는 우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동거하고 있거나 가까이 사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설문조사에 스스로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자료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일일이 읽어주고 표기하는 면접 방식을 취하였다.

4. 자료분석

이상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먼저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치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의

존성과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결혼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을 각각 구성하기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설 1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60명의 어머니(어머니세대와 할머니 세대 포괄)에 대해 개인내적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2와 3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30쌍의 어머니-할머니 세대에 대해 세대간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4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30명의 어머니 세대와 130명의 할머니 세대 각각에 대해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 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값이 높고 낮음에 따라 4분류(상호의존성 높고, 독립성 높음/상호의존성 높고, 독립성 낮음/상호의존성 낮고, 독립성 높음/상호의존성 낮고, 독립성 낮음)한 후, 세대별로 각 하위집단간의 빈도

〈표 3〉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에 나타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차원 비교

하위요인	차원	내용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쌍체 t값
물리적 거리의 유지 및 정해진 수유시간의 준수	상호의존성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음	4.51 (.67)	259명	24.63****
	독립성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을 지킴	2.59 (.89)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정도	상호의존성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지 않음	2.77 (.85)	259명	-14.36****
	독립성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	3.99 (.75)		
모유/인공유 수유에 대해 중시하는 정도	상호의존성	모유수유를 중시함	4.54 (.79)	259명	15.288****
	독립성	인공유수유도 무방함	3.19 (1.0)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	상호의존성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함	3.29 (.79)	259명	-5.72****
	독립성	자녀의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함	3.74 (.90)		
총 평균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총평균	3.78 (.45)	259명	8.05****
	독립성	독립성 총평균	3.37 (.57)		

**** p<.000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분포의 차이는 χ^2 검정으로 알아보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독립성의 차원과 상호의존성의 차원의 비교

우리나라 어머니의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 나타난 독립성의 차원과 상호의존성의 차원을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물리적 거리의 유지 및 정해진 수유시간의 준수」에 대한 양육신념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는」 상호의존성의 차원(평균 = 4.51점)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을 지키는」 독립성의 차원(평균 = 2.59점)보다 유의하게 많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모유/

인공유 수유에 대해 중시하는 정도」에 대한 양육신념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에서는, 「모유수유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성의 차원(평균 = 4.54점)을 「인공유수유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독립성의 차원(평균 = 3.19점)보다 유의하게 많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정도」에 대한 양육신념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지 않음」 상호의존성의 차원(평균 = 2.77점)을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독립성의 차원(평균 = 3.99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에 관한 양육신념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에서도,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호의존성의 차원(평균 = 3.29점)을 「자녀의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독립성의 차원(평균 = 3.74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상호의존성 차원의 총평균에서 할머니 세대의 인식이 어머니 세대의 인식보다 유의하게 높아, 할머니 세대가 가진 상호의존적 양육신념이 어머니 세대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 중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음'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4.71점)이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4.30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음'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역시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03점)이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2.50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모유 수유를 중시함' 하위요인에서도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4.67점)이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4.41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상호의존성 총평균에 있어서도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92점)이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63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이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독립성 차원의 총평균에서 어머니 세대의 인식이 할머니 세대의 인식보다 유의하게 높아, 어머니 세대가 가진 독립적 양육신념이 할머니 세대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양육신념 중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을 지킴'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2.82점)이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2.34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하는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역시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4.29점)이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69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유 수유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하위요인에서도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49점)이 할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2.90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독립성 총평균에 있어서도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60점)이 할

<표 4>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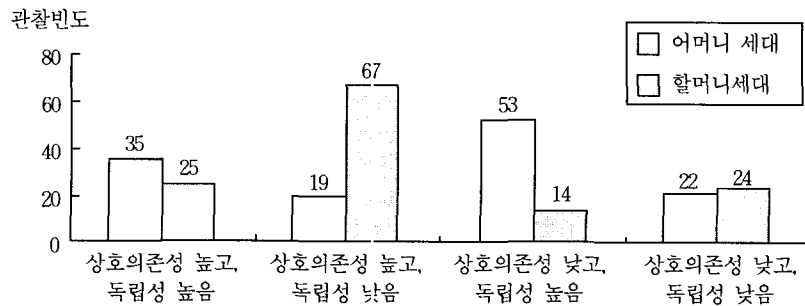
하 위 요 인	집 단	평균(표준편차)	사 례 수	쌍체 t값
물리적 거리가 밀접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음	어머니 세대	4.30 (.71)	130쌍	-5.40****
	할머니 세대	4.71 (.55)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음	어머니 세대	2.50 (.76)	130쌍	-7.38****
	할머니 세대	3.03 (.84)		
모유 수유를 중시함	어머니 세대	4.41 (.71)	130쌍	-3.02**
	할머니 세대	4.67 (.75)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함	어머니 세대	3.30 (.75)	130쌍	.40
	할머니 세대	3.26 (.82)		
상호의존성 총평균	어머니 세대	3.63 (.39)	130쌍	-6.40****
	할머니 세대	3.92 (.45)		

p<.01, **p<.000

〈표 5〉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

하 위 요 인	집 단	평균(표준편차)	사 례 수	쌍체 t값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유시간이 없음	어머니 세대	2.82 (.76)	130쌍	4.90****
	할머니 세대	2.34 (.94)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	어머니 세대	4.29 (.55)	130쌍	8.99****
	할머니 세대	3.69 (.79)		
인공유 수유도 상관없음	어머니 세대	3.49 (.98)	130쌍	5.25**
	할머니 세대	2.90 (1.0)		
자녀의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취함	어머니 세대	3.81 (.94)	130쌍	1.34
	할머니 세대	3.66 (.84)		
독립성 총평균	어머니 세대	3.60 (.44)	130쌍	7.60****
	할머니 세대	3.15 (.60)		

p<.01, **p<.000



〈그림 1〉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수준별 분포

어머니 세대의 인식(평균 = 3.15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세대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차원에 대한 개인내적 수준별 분포

여기서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각각에 대해, 상호의존성의 신념과 독립성의 신념을 각각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4가지 하위집단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림 1〉을 보면, 먼저 어머니 세대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신념은 낮고, 독립성의 신념은 높은 집단'이 53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호의존성의 신념도

높고, 독립성의 신념도 높은 집단'이 35명(27%)로 많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할머니 세대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신념은 높고, 독립성의 신념은 낮은' 집단이 거의 절반인 67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6〉에서 이러한 관측빈도를 기대빈도와 비교해 보면, 어머니 세대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없이 '독립성의 신념이 높은' 두 집단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았으며, 할머니 세대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성의 신념은 높고, 독립성의 신념은 낮은' 집단의 관측빈도만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세대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수준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표 6〉 세대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수준별 분포

관 측 빈 도(기대빈도)	세 대		전체 관측빈도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상호의존성의 신념도 높고, 독립성의 신념도 높은 집단	35 (29.9)	25 (30.1)	60
상호의존성의 신념은 높고, 독립성의 신념은 낮은 집단	19 (42.8)	67 (43.2)	86
상호의존성의 신념은 낮고, 독립성의 신념은 높은 집단	53 (33.4)	14 (33.6)	67
상호의존성의 신념도 낮고, 독립성의 신념도 낮은 집단	22 (22.9)	24 (23.1)	46
전체 관측빈도	129	130	259

df = 3, $\chi^2 = 51.243$, $p < .000$

= 51.243, $p < .000$).

V. 결론 및 논의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첫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됨을 경험하며 곧 이어 자녀를 영아·걸음마기 동안 양육하는 시기에는 인간발달의 역동성이 결집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제까지의 발달 경험이 다른 두 성인 남녀가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첫 자녀를 임신·출산하여, 초기 2, 3년간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속한 문화에서 전해지는 풍속과 가치관을 체화(體化)시켜가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부모됨과 첫 자녀의 영아·걸음마기 양육방식에는 인간발달을 보는 그 문화의 관점과 특성이 고스란히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연령이 2세 정도 되는 어머니 세대와 그 어머니(할머니 세대)를 비교하여 이들의 영아·걸음마기 양육신념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은 '물

리적 거리의 유지 및 정해진 수유시간의 준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정도', '모유/인공유 수유에 대해 중시하는 정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어머니가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에서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의 수준보다는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하위요인별로 다시 살펴보면 '물리적 거리의 유지 및 정해진 수유시간의 준수', '모유/인공유 수유에 대해 중시하는 정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상호의존성을 더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정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에서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물리적 거리의 유지' 및 '수유방식'에 대한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은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독립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비해, '자녀를 인정하는 정도'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은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독립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가령, '아이를 다른 방에 재우는 것'이 독립성의 특성을 나타

내고,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자는 것'이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가설은 선행 비교문화 연구들(Greenfield, 1994; Ho, 1989, 1991; Kim & Choi 1994)에 의해 어느정도 일반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본 연구 도구의 내용 중 '2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독립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2세 아이의 의견은 존중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육아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유안진, 1990)고 했듯이 문항의 내용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구에서 구성된 몇몇 문항의 내용은 추후연구에서 문화간 비교연구를 위해 사용될 때에는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료 분석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호의존성의 차원과 독립성의 차원에서 각각 살펴 본 양육신념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각 세대의 양육신념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할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보다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각 세대의 양육신념에 있어서 독립성의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할머니 세대의 경우 어머니 세대보다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반면에 어머니 세대의 경우 할머니 세대보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 있어서 문화내 비연속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의 차원에 대한 개인내적 수준별 분포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 차이가 있었다. 할머니 세대는 양육신념에 있어서 독립성의 수준은 낮고 상호의존성의 수준은 높은 집단만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어머니 세대는 양육신념에서 상호의존성의 수준은 낮고 독립성의 수준은 높은 집단과, 상호의존성의

수준도 높고 독립성의 수준도 높은 집단이 많게 나타나, 어머니 세대에 있어서는 양육신념에서 독립성의 수준이 높은 것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 세대의 경우, 독립성의 수준은 높고 상호의존성의 수준은 낮은 집단 뿐 아니라, 독립성의 수준도 높고, 상호의존성의 수준도 높은 집단이 모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세대의 경우 윗세대에서 물려받은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과 현대 사회에서 배우게 된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과, 윗세대에서 물려받은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보다는 새로 배운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중시하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가 양육신념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과도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렇게 젊은 어머니 세대의 자녀 양육신념에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수준이 공히 높은 집단이 많다는 사실은, 할머니 세대에서 중시하던 상호의존성을 여전히 중시하는 의식이 어머니 세대에서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신념에 있어서의 문화내 연속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 보다는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할머니 세대의 경우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만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 세대에서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은 높게 나타나 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은 높거나 낮은 경우가 모두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양문화권에서 중시하는 아동발달의 원리는 상호의존성이라는 Greenfield(1994), Greenfield와 Suzuki(1998)의 가설 및 아동양육에 있어 나타나는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이라는 문화적 가치체계는 한 연속체내에서 정도를 달리하여 혼재하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최근의 비교심리학적 연구결과들(Super & Harkness, 1997)과 상당히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신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내용에서 상호의존성의 차원과 독립성의 차원을 명료하

게 드러내지 못한 문항들이 발견되었다. 가령, '아이에게 1세 반 정도까지 배변훈련을 시키는 지의 여부'나 '2세 정도의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지의 여부'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호의존성을 증시하는 양육신념이라 보았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전통육아에서 중시한 경향이 있으므로 아직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양육신념의 특성이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감이 있다. 그리고,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몇몇 하위요인은 신뢰도가 낮아 양육신념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양육신념에 있어 이렇게 상호의존성의 차원과 독립성의 차원에 대한 문항 구성의 내용이 정밀하지 못한 측면들은 추후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미국 문화간 비교연구시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본 양육신념의 하위요인을 삼국의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자료를 합하여 재분석하거나, 아니면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대신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항만을 중심으로 문항별 비교 분석을 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육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요인분석에 이용한 data와 동일한 것을 연구 가설의 검증에서 다시 사용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 신념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새로운 피험자에게 적용시켜 보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영아·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체계를 연구해 보고 이러한 양육신념이 세대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나타나는 세대간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규명해 보고, 아울러 아동양육과 발달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1) 박외숙(1997). 상담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합주의 가치.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pp. 295-345). 서울 : 성원사.

2)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3) Anisfeld, E., Casper, V., Nozyee, M., & Cunningham, N.(1990). Does infant carrying promote attachment? An experiment study of the effects of increased physical contact o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5), 1617-1627.

4) Brazelton, T. B.(1990). Commentary : Parent-infant co-sleeping revisited, *Ab Initio*, 2(1), 1-7.

5)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s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1-40).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6) Greenfield, P. M., & Cocking, R. R.(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7) Greenfield, P. M. & Suzuki, L.(1998).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 Implications for parenting, education, pediatrics, and mental health. W. Damon, I. E. Sigel, A. A. Renning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gy*(pp. 1059-1109). NY : John Wiley & Sons, Inc.

8) Greenfield, P. M.(1994).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s developmental scripts :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 Ho, D. Y. F.(1989). Continuity and variation in Chinese patterns of social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49-163.

10) Ho, D. Y. F.(1991). Discussion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Chair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cognitive socialization of*

- monority children, Proceedings of a workshop,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 11) Kagitçibasi, C.(1996). Family and humand development across cultures : A view from the other side. Mahwah, NJ : Erlbaum.
 - 12) Kim, U. & Choi, S. H.(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227-25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13) Lau, S.(1992).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 Value preference, personal control, and the desire for freedom among Chinese in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Singapore. *Person, Individual Difference*, 13(3), 361-366.
 - 14) Lebra, T. S.(1994). Mother and child in Japanese socialization : A Japan-U.S.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259-27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15) LeVine, R. A., Miller, P. M., & West, M. M.(Eds.),(1988).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 40. San Francisco, Jossey Bass.
 - 16) Mundy-Castle, A. C.(1991). Commentary and discussion.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Chair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cognitive socialization of monority children*. Proceedings of a workshop,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 17) Parker, S. J.(1997). The American way of child-rearing : Changes in attitudes and advise from the Puritans to Dr. Spok. 한국과 미국의 육아법 비교 : 스포크 이론을 중심으로. S. J. Parker 교수 초청 강연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주관. 제 97-3호.
 - 18) Pepper, S. C.(1942). *World hypotheses : A study in evidence*. Berkeley, CA : Univerisy of California Press.
 - 19)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g :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st.*, NY : Oxford Univeristy Press.
 - 20) Super, C. M. & Harkness, S.(1997). The cultural structuring of child development.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swath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gy*. Vol.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pp.1-40). Needham Heights, MA : A Viacom Company.
 - 21) Triandis, H. C.(1989).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7, 41-133.
 - 22) Weisner, T. S.(1996). The 5-to-7 transition as an ecocultural project. In A. J. Sameroff & M. M. Haith(Eds.), *Reason and responsibility : The passage through childhood*.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